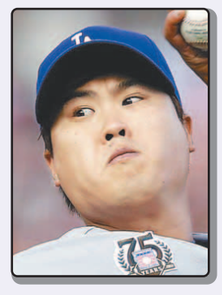
8 서재응 (투수)
2002년 (뉴욕 메츠)
6시즌 28승40패 / 방어율 4.60

9 백차승 (투수)
2004년 (시애틀)
4시즌 16승18패 / 방어율 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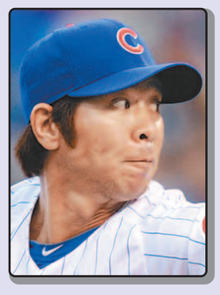
10 구대성 (투수)
2005년 (뉴욕 메츠)
1시즌 / 방어율 3.91

11 추신수 (외야수)
2005년 (시애틀)
10시즌 타율 0.282 117홈런 467타점

12 류제국 (투수)
2006년 (시카고 컵스)
3시즌 1승3패 / 방어율 7.49



13 류현진 (투수)
2013년 (LA 다저스)
2시즌 28승15패/ 방어율 3.17



14 임창용 (투수)
2013년 (시카고 컵스)
1시즌 / 방어율 5.40

15 강정호 (내야수)
피츠버그 ?

한국인 14명 '꿈의 무대'…강정호 15번째 예약하다

주말기획 | 한국야구, ML이 부른다

한국야구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도전사

**강속구 투수 이원국 1968년부터 3년간 마이너
이재우·박철순도 도전 트리플A·더블A서 활약
1990년대 김병현·서재응·최희섭 등 주목받아
역대 ML계약 총 59명…강정호 등 도전은 계속**

한국야구의 메이저리그 도전 역사는 50여 년 전인 1960년대 시작됐다. 많은 이들이 1994년 앳되고 흥분된 얼굴로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박찬호를 그 시작으로 기억한다.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첫 한국인인 것은 맞지만 첫 도전자, 첫 개척자는 아니었다.

●한국인 첫 ML 도전 이원국의 전설

전설적인 강속구 투수로 꼽히는 이원국(66)은 중앙고 3학년이었던 1966년 일본프로야구 도쿄 오리온스(지바롯데 전신)에 스카우트돼 해외무대로 진출했다. 1968년 일본프로야구의 외국인선수 제한 규정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3년간 시카고 컵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몬트리올 엑스포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산하 더블A와 트리플A에서 던졌다. 메이저리그 진출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1972년부터 1982년까지 멕시칸리그에서 150승(85패)을 거뒀다. 한국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듬해인 1983년 MBC에 입단해 짧은 기간(8경기)이지만 국내 팬들과 만나기도 했다.

●이재우와 박철순의 도전

이재우(70) 전 OB 감독은 야수 최초 메이저리그 도전의 주인공이다. 실업야구에서 유격수로 활약했던 이 전 감독은 1972년 제일은행에서 나와 오클랜드 산하 트리플A 팀에서 뛰었다. 은퇴 후에도 미국야구와 인연을 이어 시애틀 인스트럭터로 활동하기도 했다.

프로야구 원년 스타 박철순(59)은 1980년 밀워키와 계약금 1만 달러, 월봉 700달러에 계약했다. 당시 물가, 프로리그도 없던 한국프로야구 현실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대우였다. 더블A에서 뛰었던 박철순은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 2월 OB가 밀워키에 이적료 3만 달러를 지급하며 스카우트해 OB에 입단, 원년우승을 이끌었다.

●한국인 최초 빅리거 박찬호 이후 세대들

1994년 LA 다저스에 입단한 박찬호가 팀의 주축 투수로 활약하기 시작하며 한국 아마추어 유망주들에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구애가 집중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프로야구가 흔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박찬호를 뛰어넘는 한국인 메이저리그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 김병현이 큰 주목을 받았고, 서재응, 최희섭, 김선우 등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롱런하지 못했다. 추신수가 큰 성공을 거두며 명맥을 이어갔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미국 무대에 진출한 한국인 선수가 메이저리그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힘겨워졌다.

2013년 류현진은 한국프로야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하며 다저스에서 주축 선발로 활약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는 강정호가 피츠버그와 계약하며 한국프로야구가 배출한 야수 1호 메이저리그 선수에 도전한다. 박찬호부터 강정호까지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한 한국인 선수는 총 59명. 그 중 메이저리그 무대를 한 번이라도 밟아본 선수는 14명이었다. 나머지는 지금도 마이너리그에서 빅리거의 꿈을 꾸고 있거나 이미 꿈을 포기하고 귀국했다. 강정호는 한국인 역대 15번째 메이저리거에 도전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메이저리그 무대 밟은 일본 선수 총 48명

**1964년 무라카미 아시아 빅리거 1호
30년후 노모 다저스 입단 이후 보편화**

1964년 일본의 무라카미 마사노리가 메이저리그의 문을 열어젖혔다. 아시아야구 1호였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년 활약했다. 그 후 30년간 일본야구는 메이저리그의 문을 닫았다.

그러다 돌연 나타난 이단아가 노모 히데오였다. 일본프로야구를 평정한 뒤 1995년 LA 다저스에 입단해 돌풍을 일으켰다. 노모가 개척자가 되자 요시이 마사토, 이라부 히데키, 하세가와 시게토시, 사사키 가즈히로, 이시이 가즈히사 등 일본프로야구 특급스타들이 줄을 이었다. 야수로서 스즈키 이치로가 2001년 포스팅을 통해 시애틀에 입단하며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타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남겼다. 신조 쓰요시와 마쓰이 히데키, 다구치 소 등도 뒤를 따랐다. 포수인 조지마 겐지까지 메이저리그로 갔다.

일본의 특급선수의 메이저리그 입성은 관례처럼 됐다. 특히 마쓰자카 다이스케, 이와쿠마 히사시, 다르빗슈 유, 다나카 마사히로 등 초특급 선수의 포스팅 금액과 연봉은 미국과 일본 야구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메가톤급 계약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일본 선수는 총 48명. 그 중 현재 소속팀이 없는 이치로가 계약에 성공할 경우 현역 일본인 메이저리그 선수는 10명이다.

김영준 기자

● 한국인 메이저리그 도전사

※ 계약금 없는 선수는 미확인. ★은 ML경험 선수.

순번	이름	구단	계약연도	계약금(달러)	순번	이름	구단	계약연도	계약금(달러)
1	★박찬호	LA 다저스	1994	120만	31	정영일	LA에인절스	2006	100만
2	최경환	보스턴	1994	5만	32	손혁	볼티모어	2006	–
3	최창양	필라델피아	1994	4만	33	이시몬	시카고컵스	2006	5000
4	김재영	보스턴	1997	20만	34	이대은	시카고컵스	2007	81만
5	★봉중근	애틀랜타	1997	120만	35	강경덕	템파베이	2007	7만5000
6	★서재응	뉴욕메츠	1997	135만	36	장재형	미네소타	2007	–
7	서재환	뉴욕메츠	1997	10만	37	최현욱	미네소타	2007	–
8	★김선우	보스턴	1997	125만	38	최형록	미네소타	2007	–
9	★조진호	보스턴	1998	85만	39	이학주	시카고컵스	2008	115만
10	정석	LA 다저스	1998	10만	40	강인규	미네소타	2008	10만
11	★백차승	시애틀	1998	129만	41	하재훈	시카고컵스	2008	10만
12	김병일	피츠버그	1998	40만	42	정수민	시카고컵스	2008	51만
13	송승준	보스턴	1999	80만	43	안태경	텍사스	2008	80만
14	★최희섭	시카고 컵스	1999	120만	44	김재윤	애리조나	2008	80만
15	★김병현	애리조나	1999	225만	45	신진호	캔자스시티	2009	60만
16	오철희	보스턴	1999	75만	46	김동엽	시카고컵스	2009	55만
17	권윤민	시카고 컵스	1999	120만	47	최지만	시애틀	2009	42만5000
18	★이상훈	보스턴	2000	105만	48	김선기	시애틀	2009	43만
19	정영진	샌디에이고	2000	25만	49	이지모	LA 다저스	2009	–
20	★추신수	시애틀	2000	137만	50	남태혁	LA 다저스	2009	50만
21	채태인	보스턴	2000	80만	51	문찬종	휴스턴	2009	35만
22	안병학	보스턴	2001	95만	52	나경민	시카고컵스	2009	72만5000
23	이승학	필라델피아	2001	115만	53	김진영	시카고컵스	2010	120만
24	김일엽	필라델피아	2001	85만	54	김성민	오클랜드	2011	51만
25	★류제국	시카고컵스	2001	160만	55	★류현진	LA 다저스	2012	6년 총액 3600만
26	유병목	보스턴	2002	–	56	★임창용	시카고 컵스	2012	10만
27	정성기	애틀랜타	2002	24만	57	윤석민	볼티모어	2014	3년 575만
28	★구대성	뉴욕메츠	2005	연봉 80만	58	박효준	뉴욕 양키스	2014	116만
29	최향남	클리블랜드	2005	10만	59	강정호	피츠버그	2015	최대 5년
30	남윤희	세인트루이스	2009	월봉 7500					1650만

수술 없이 강한 남자!!
20대의 막강 파워! '뉴 맨'!
대표이사 서영숙
특 허 제 10-0756243 호
(PATENT NUMBER)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성기능 강화용 링
특 허 청 장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개폐장치
본드부착 방식이 아닌 보석물림방식으로 반영구적 천연자수정
자석 (약700가우스)
두께3mm의 얇은 본체에 특허기술로 진공 내장
본체 (순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세월의 흐름을 가장 먼저 느끼는 남성의 심벌
힘도 약하고 중간에 시들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특허청 최초 발명특허!
발명의 명칭 "남성 성 기능 강화용 링"
세계최초 유일의 3개 부문 발명특허
2.5mm마다 차별화된 38가지 사이즈 '뉴맨'
사용즉시 나타나는 뉴맨의 힘!
1.힘이 약하다 ➡ 20대의 막강 파워!
2.잘 시든다 ➡ 끝까지 강력하게!
3.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록!
4.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 강하고 단단하게!
세계인의 자존심 '뉴맨'
출시 10년만에 60만고객돌파! 일본과 중국 지사 설립
동남아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20여개국 판매
15일간 사용해보고 이유 없이 반품, 환불
중국지사 T. 0433-286-5031 지사장 권대근
일본지사 T. 03-6233-8994 지사장 호시 고우지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이동준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점점 약해져가는 당신,
강력했던 위상과 자존심마저 약해져 갑니다.
아스라해진 그때의 힘, 절정의 시간들,
뉴맨이 되돌려 드립니다."
이동준의 '뉴맨!'
"최고의 남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 뉴맨 10년! 60만고객 돌파! 20여개국 수출!
· 안전하고 과학적인 발명특허 제품!
NAVER 에서 뉴맨 을 검색하세요
Daum 에서 뉴맨 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핸드폰 주소창에서 뉴맨.kr 을 입력하세요.
당신의 사이즈는? ※ 사이즈 단위는 cm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앤제이스포츠 / 통신판매 허가 서초 0701호
평상시 사이즈(cm): 6.5 이하 | 6.5 | 6.75 | 7 | 7.5 | 7.75 | 8 | 8.25 | 8.5 | 8.75 | 9 | 9.25 | 9.5 | 9.75 | 10 | 10.25 | 10.5 | 10.75 | 11 | 11.25 | 11.5 | 11.75 | 12 | 12.25 | 12.5 | 12.75 | 13 | 13.25 | 13.5 | 13.75 | 14 | 14.25 | 14.5 | 14.75 | 15 | 15.25 | 15.5 | 15.75 | 16 | 16 이상
뉴맨 호수: 주문제작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3호 | 24호 | 25호 | 26호 | 27호 | 28호 | 29호 | 30호 | 31호 | 32호 | 33호 | 34호 | 35호 | 36호 | 37호 | 38호 | 주문제작
T.1577-5579, 010-7636-3346